



서울대학교 뉴욕지역

골든클럽 회보

GOLDEN CLUB NEWSLETTER

SEPTEMBER 2023

WE LEAD A HEALTHY AND HAPPY LIFE

VOL. 137



웃음과 게임, 동료애로 가득했던 8/17 피크닉

골든클럽은 8월 17일 역사가 깊은 Alpine Pavilion에서 피크닉을 가졌다. Hudson강의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약 70명의 회원과 가족들이 웃음과 기쁨으로 가득한 하루를 즐겼다. 홍종만 골든클럽 회장은 많은 회원들의 참석과 호응에 감사의 인사말을 하였고, 회원들의 참여와 좋은 호응에 부응하여 Alpine Pavilion에서 자주 피크닉을 갖도록 고려한다고 하여 많은 박수를 받았다.

여러모로 성공적이었던 이 행사에서는 참석자들은 풍성한 음식을 즐기며 공유된 기쁨의 분위기를 조성했다. 장소는 긴밀한 유대감을 실감케 하며 참석한 모든 회원들이 서로 연결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데 이상적인 분위기를 제공했다. 또한 이번 행사는 경쟁과 웃음으로 가득한 참여적인 게임으로 활기찬 모습을 보였다. 전략적인 목재 블록 쌓기 타워 게임에는 참가자들이 상대 경쟁자를 이기려는

노력에서 긴장과 기술을 균형있게 유지하는 모습으로 많은 즐거움을 보여주었다. 빙고게임에서는 참가자들이 승리를 차지하기 위해 열심히 카드에 표시를 하며 기대감을 높였다. 참석한 대부분의 참석자가 상품을 받았으며 흐뭇한 분위기를 이어 나갔다.

한때 비가 내리고 흐렸던 날씨는 허드슨 강변의 아름다운 풍경과 어우러지는 화창한 날씨로 변해 참가한 모든 이들의 우려를 불식하게 하였고, 오늘의 행사에 독특한 매력을 더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참가자들은 이야기를 공유하고 웃음과 즐거운 시간을 나누며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었다. 골든클럽 피크닉은 참석자들의 마음과 기억에 오랫동안 각인될 것이며 이 행사를 통해 단결, 우정 및 공유 경험의 힘을 다같이 맛을 본 하루였다.

금영천 (약대72)

9월 골프대회

9월 골프대회는 가까운 브롱스의 Split Rock Golf Course에서 열립니다. 봄에 공사중이던 tee box가 수리가 완료되어 아주 좋은 상태이며 거리도 가깝고 식사도 훌륭하여 즐거운 대회가 될 것입니다.

일시: 9월 21일 12시 Tee off
장소: Split Rock Golf Course
주소: 870 Shore Rd, Bronx, NY 10464
시상식 및 디너: 골프장 라운지
회비: \$120
문의 및 참가신청: 김정필 (201-965-7759)



10월 산행

이번 여름은 극심한 무더위, 산불 또는 폭우로 도처에서 이재민들이 고생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살고있는 뉴욕지역은 상대적으로 지낼 만한 것 같습니다. 한 시간 운전 거리에 그리 높지는 않은 아름다운 산과 호수가 잘 어우러져 하이킹 즐기기에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서울의대 동문, 의학전문 기자 홍혜걸박사는 '치매보다 더 잔인하고 처참한 질병이 혈관질환(뇌졸중, 심장병등)'이라며 운동을 통해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성인병과 혈관질환을 예방하고자고, 30분 이상 저강도 운동과 무리하지 않은 등산을 권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회원 여러분 많이 참석하여 즐겁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일시: 10월 19일(목) 9:00시
모이는 장소: PIP exit 4-5 사이 Commuter parking lot
준비물: 점심도시락/샌드위치와 마실물, Hiking Pole
참가신청: 홍종만 646-342-2667, hong1945@gmail.com



12월 Myrtle Beach Golf Trip

2018년까지 정기적이었던 겨울 골프여행으로, 지난 3년간 West Palm Beach, Florida여행을 마치고, 올해는 너무 춥지 않은 12월 중순 Myrtle Beach 골프여행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간: 12월 10일(일)-16일(토)
여행지: Legend Resort, Myrtle Beach, South Carolina
 12월 10일/16일: Travel to and from Myrtle Beach
 월-금요일: Golf 5 rounds, Legend Resort Courses

예상경비(1인당):

Golf & Villa(4 per 2BR)	\$570
Transit High-roof Van rent	\$200
저녁식사 및 공동경비	\$200
합계	\$970

*방을 혼자 사용하는 경우, 추가경비 \$170
 *개인 차량 사용 경우, 비용공제 \$200

참가 신청 회원은 Legend Resort에 지불할 '비환할 예약보증금' \$200과 독방, 개인차량 사용 여부를 9월 20일까지 알려주기 바랍니다.

문의 및 참가신청:
 홍종만 646-342-2667, hong1945@gmail.com



뉴욕동창회 행사

뉴욕동창회 피크닉:
 9월 23일 (토) 오전11시-오후3시
 Rockland Lake State Park, New York
 회비 \$50 /동문 (가족은 무료)

뉴욕동창회 추계 골프대회
 10월 12일 (목) 오전 11시
 장소: Pelham Golf Club, New York
 회비: \$120

뉴욕동창회 송년회
 12월 2일 (토)
 장소: Double Tree Hotel, Fort Lee, NJ



게임을 진행하고 있는 김병순 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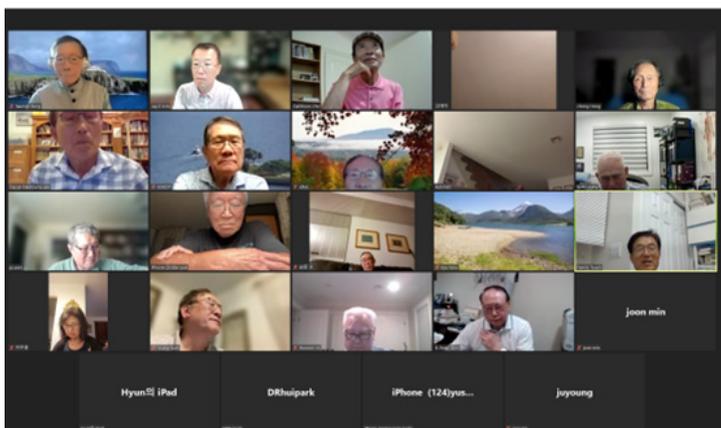
Bingo 게임을 즐기는 회원들



Jenga - Timber Block 빼기 게임



준비한 다양한 상품들을 받고 즐거워하시는 회원들



Zoom Seminar 열렸다

8월 16일 저녁 8시에 김충정 Family Touch 부원장을 강사로 모시고 Well Dying에 대한 zoom seminar가 열렸다 모두 25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이러한 주제에 대한 회원들의 큰 관심을 보여주었다. 이 세미나의 주제는, “죽음을 잘 맞이하는 방법은 남은 시간을 잘 사는 것이다. 마음에 부담이 될 일들, 걱정이나 불안을 가져올 일들을 내려놓고 자유스럽게 살자” 이였다.



먼저 도착하신 남자 회원님들
(왼쪽부터) 김정필 성기로 김광현 임도혁 김충정
오순문 박희병 손갑수 박기환 윤선규

꼭 이 사회에 훌륭한 지도자 되길

손녀딸의 West Point March Back과 입학식에 다녀와서

■ 여주영(명예회원)

우리는 보통 자녀를 대학에 보낼 때 Harvard, Yale, Cornell, Princeton, Columbia같은 학교를 생각하게 된다. 사관학교를 보낼 생각을 하는 부모나 혹은 가졌다고 생각하는 자녀들은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나는 자녀가 있거나 손주들이 있으면 한번 육군사관학교(육사)나 공사, 해사 등 미국내 5대 군사 양성 학교 어느 곳이라도 가볼 것을 적극 권하고 싶다. 요즘처럼 물질문명이 발달하고 각종 문제로 어지러운 사회 상황에서 크게 문제없이 버티고 살려면 강한 정신력과 체력이 요구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취지를 살려 우리 가족은 손녀딸을 강하게 키워 올해 육군사관학교(West Point)에 입학시켰다. 물론 본인의 일이지만 이곳을 보내기 위해 아들과 며느리는 몇 년 전부터 그 길을 안내하고 지도하며 강하게 훈련시켰다. 입학하기 위해서는 학업도 우수해야 하고 체력, 지도력이 뛰어나야 하는 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많은 준비가 요구되는 학교이지만, 일단 입학하고 졸업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 훈련된 장교로 인정받게 된다. 그러나 입학해도 처음에는 6주간의 기초 훈련을 통과해야만 정식 입학할 수 있게 된다. 이 기간 중에는 핸드폰도 사용할 수 없고 오로지 훈련을 이겨내야만 되는데 이때 이겨내지 못해서 포기하거나 학교측으로부터 합격 평가를 받지 못한 학생 100여명이 이미 탈락하게 되고, 또 졸업때까지도 학생 100여명이 견뎌내지 못하고 포기하게 된다고 한다. 얼마나 교육과 훈련이 극심한지 알만한 대목이다.

손녀딸은 보내온 손편지 중에 오늘 같이 앉아 식사한 남학생이 내일 보면 없고 어제 같이 훈련받은 남학생이 오늘 보면 보이지 않고 등등... 혹독한 훈련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 둘 떨어져 나가는 걸 보면 너무 안타깝다고 했다. 그렇다 보니 모든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훈련을 잘 마쳐 정식 입학할 수 있길 고대하고 마지막까지 4년간의 학업과 훈련을 잘 마쳐 무난히 졸업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West Point는 1802년 신생 미국의 군대를 이끌어가기 위한 곳으로 프랑스의 사관학교를 모델로 설립된 학교다. 졸업생 가운데는 Ulysses Grant 대통령, Dwight Eisenhower 대통령, Douglas McArthur 장군, George Patton 장군, Norman Schwarzkopf 장군과 같은 저명한 정치가나 고위 장성이 많다. 또 전 주한 미군 여자대장도 West Point 출신이다.

여자도 강해야 된다며 스파르타식으로 키운 아들 내외는 지금 뉴욕에 없어 할머니인 내가 당분간 보호자 역할을 하게 되어, 그 좋아하던 긴 머리를 조금도 주저없이 짧게 자른 손녀딸을 데리고 바로 다음날 학교에 들여보냈다. 17세짜리가 그 혹독한 훈련을 어떻게 견뎌낼까 하며 마음은 아팠지만 꼭 해내 주리라 기대하며 발길을 돌렸다. 일주일 후 학교에서는 독립기념일을 기해 학부모들을 초청해 신입생들을 모두 모아 놓고 거대한 환영식(A day)을 열어주며 갑자기 자유가 박탈(?)된 학생들의 마음과 기분을 풀어주었다. 육사밴드의 연주, 재학생들의 음악연주, 노래 자랑, 바로 머리 위에서 10



여분간 이어진 화려한 불꽃놀이 등... 자정이 다되도록 이어진 거대한 파티에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모두 하나같이 'USA! USA!'를 연호하며 자리를 떠날 줄 몰랐다. 잊을 수 없는 밤이었다. 이제 신입생들은 다음날부터 본격적인 극기훈련에 들어가겠지... 학교측 영상에 뜬 글을 보면 학생들은 화생방 훈련, 사격 훈련, 산속에서 목표물 찾기 등 갖가지 훈련을 이어갔다.

다행히 손녀딸은 어느 날 한번은 어느 전화기를 통해 집으로 통화를 몇 분 하게 한다는데, 며느리가 그 전화를 받고 보니 손녀딸은 플랭크 대회에서 15분간 버터 팀에서 1등을 했다고 한다. 아마도 평소 해온 극기훈련이 도움이 많이 된 것 같다.

손녀딸은 마침내 8월 7일, 6주 훈련을 잘 마치고 먼 곳에서 새벽시간 대원들과 함께 학교를 향해 행진해 왔다. 일명 March Back이다. 이 자랑스러운 행군속에 들어있는 아들이나 딸의 모습을 잠깐 보기 위해 타주에서도 부모들이 근처에 숙소를 마련하고 이른 새벽부터 나와 자리를 하고 한 두 시간씩 기다린다. 나 또한 마찬가지. 새벽 5시 반부터 집을 떠나 학교가 있는 Upstate로 향했다. 언덕 위에 자리하고 드디어 지나가는 손녀딸을 발견하고 '채운' '채운' 하고 이름을 크게 불렀다. 손녀딸은 내 목소리를 들었겠지, 얼마나 장한지... 모든 부모가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다. 12일, 마침내 고대하던 입학식(A Day)이 거행됐다. 모두가 훈련에서 살아남은 자랑스러운 인재들이다. 입은 제복에서 향기가 물씬 난다.

이들이 장차 이 사회를 밝고 건강하게 이끌어 나가줄 것을 간절히 염원한다. 이민 3세로서 훗날 이 사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이 힘든 과정을 선택한 손녀딸이 너무 자랑스럽다.

캐나다 동부 여행기 I

■ 이대영(문리대64)

금년 7월 중순에 캐나다 동부의 New Brunswick, Nova Scotia and Prince Edward Island 등 세 주(Province)에서 두 주일을 지내고 돌아왔다. 방대한 지역을 한꺼번에 돌아다니 볼 욕심이다 보니 일곱 곳의 호텔을 묵으면서 약 2500 마일을 자동차로 돌아다녔다. 여름 피서 여행지로 잘 알려진 곳이어서 수년전부터 베틀다가 이번엔 단행하게 된 것이다.

Maine 주의 Bangor 에서 하룻밤을 지낸 후에 두번째 날에 캐나다에서 첫 기착지는 New Brunswick Province의 Sackville 이었다. Sackville Waterfowl Park 은 큰 호수에 갈대가 우거지고 야생꽃이 무성하거나 관목수가 늘어선 사이로 boardwalk을 2.5 마일이나 설치해 놓아서 새벽부터 석양까지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면서 걷기가 좋은 곳이다. 그리고 Kouchibouguac National Park을 찾아가 보았는데 바닷가와 숲속으로 멋진 트레일이 많이 만들어져 있었으나 방대하여 두루 다녀 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칠 수 없듯이 골프장을 찾아서 캐나다에서의 첫 골프 한 라운드 하는 하였다.



Nova Scotia는 미국의 메인 주 보다 북쪽에 있고 바다로 둘러 쌓인 반도여서 여름 휴양지로 각광을 받는 곳이다. 뉴욕보다 한시간 앞의 시차가 있다. Nova Scotia주의 남쪽에 위치한 Digby 라는 곳은 배를 타고 나가서 고래들이 노는 모습을 구경하기로 유명하고, 북쪽의 섬은 주 넓이의 4분의1쯤이나 차지하는데, 그 섬의 맨 북쪽에 커다란 국립공원(Cape Breton Highlands Nat Pk)이 있고 한바퀴 도는 길은 Cabot Trail 이라고 하며, 세계적인 아름다운 드라이브 코스로 알아준다고 선전한다.

이곳은 캐나다의 가장 동쪽에 위치한 Nova Scotia 주(Province)의 수도이자 최대도시인 Halifax 라는 항구에 있는 Halifax Citadel National Historic Site이다. 지금은 아무런 쓸모가 없어 버린 우중충하게 빛 바랜 요새 철옹성을 둘러보면서 끊임없이 발전을 거듭한 인류문명과 역사를 새삼 새겨 보게 된다. 아래의 사진은 평범한 한 구릉이거나 평화로운 동산 같아 보인다. 그러나 올라가 보면 어마어마한 성벽 요새이다. 영국군이 건축해서 사용했던 곳을 그 시대를 재현하여 놓고 관광객을 부른다. 성은 8각형의 별모양으로 지어져 있고 빙 둘러서 촘촘하게 대포를 설치했던 자리가 있다. 밖에서 보이는 폭발동산의 사통팔방에 실제로는 수많은 대포구멍들을 설치해서 위장해 놓았던 것이다.



입장료는 성인 \$12.50 인데, 젊은이들을 고용하여 옛 영국 군인역할을 하게 하며, 실내의 매점, 안내, 식당에서는 그 당시의 복장을 갖춘 여성들이 일을 하고 있다.

Halifax 항구는 바닷가로 boardwalk 을 잘 만들어 놔서 관광객들을 즐겁게 한다. 아래의 사진은 Halifax 부두의 풍경들이다. Halifax 시내의 한 가운데에 아름다운 정원공원이 있고 무료이다. Halifax 와 교량 하나 사이로 바다 건너 마주 보는 곳에 Dartmouth 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마치 Halifax의 부속도시 같은 곳이며, 큰 교량 두 개와 자주 통행하는 배로 왕래한다. Nova Scotia 의 서남쪽에 있는 Digby 항구의 예쁜 전경이다. 이곳은 두가지로 유명한 곳인데, 하나는 Whale Watching 그리고 또 하나는 Scallop 이다. Nova Scotia Province의 북쪽으로 가 보자. 북쪽에 큰 섬이 있는데 그 섬의 북부에 있는 국립공원을 가는 길은 서쪽 해안을 바라보면서 달리는 코스가 일품이다. 순환도로 격의 Cabot Trail에 대하여 그들은 세계적인 명소라고 자랑한다.



NS 북부 섬에서 자동차로 Cabot Trail 을 달리다가 국립공원의 서북코너가 맞닿는 즈음에 Pleasant Bay라고 하는 멋진 이름의 마을을 만나게 되는데, 운전이 지루해질 무렵이라 한 어부가 Lobster를 높이 치켜들고 서 있는 실물 크기의 조형물을 그냥 지나치기가 어렵다. 바다를 내다보면서 Lobster Roll 을 즐긴 게 일품으로 기억에 남는다. 식당의 뒤뜰에 deck로 야외 객석을 설치해 놓았는데 그 끝에서 불과 몇 발자 되는 곳에 Fence라고 두줄을 쳐 놓았다. 조그만 위험표지 팻말을 매달아 놔는데 그곳은 여기에 오면서 멀리 보였던 그 베틀인가 보다.

캐나다에서 흔히 만나는 사인에 "At Your Own Risk"로 허용되는 게 많고 위험대처 하는 것이 미국 보다 훨씬 너그럽다(?). 심지어는 교량들의 교각과 난간도 미국보다 훨씬 허술한 것을 본다.

[후편은 다음호에 계속]

정해민의 가족 여행

■ 정해민(법대55)

금년에는 우리 그리고 두 딸 가정에 경하할 만한 일이 많이 있었다. 우선 우리 부부는 올해가 결혼 60주년을 맞는 해이다. 큰딸 집 만 손녀가 로스쿨 졸업, 변호사 자격 취득 후 뉴욕의 대형 law firm에 취직이 되었다. 둘째 딸 집의 쌍둥이 손자들은 둘 다 미국의 우수한 대학에 합격하였다. 또 둘째 딸은 굴지의 law firm NY Office의 Managing Partner로 발탁되었다. 이런 좋은 일들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온 가족 (모두 10명)이 같이 가족 여행으로 한국과 일본을 3주간 동안 다녀오기로 결정하였다.

여행 준비의 일환으로 나의 몸 상태가 긴 해외 여행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했고 나를 두번씩이나 심장 수술을 했던 Dr. Singh 으로부터 세번에 걸친 정밀 검사를 받았다. 최종 결과 허락은 받았으나 극히 조심해야 한다는 딱지를 붙인 채 이번 여행에 오르게 되었다. 총 일정은 한국에서 13일, 일본 (Kyoto와 Tokyo에서) 7일 그리고 왕복 2일 모두 22일의 대장정이었다. 이번 서울 방문은 7년만이었다. 7년 전에 비해 더 많은 아파트가 들어선 것 같고 특별히 첫 숙박지인 잠실의 롯데 호텔은 높이가 101층으로 한국에서는 제일 높은 빌딩이다. 시설이나 장비가 모든 것들이 거의 완벽하다. 이전에는 광화문에 있는 Four Season Hotel에 투숙하였으나 그 당시 세월호 데모의 기억 때문에 이번에는 강남 잠실에 있는 이곳으로 정하게 된 것이다.

나는 원래 6남매의 넷째로 태어났는데 형제들 내외 12명 중 현재 생존하고 있는 분은 두째 형수, 유일한 혈육인 여동생 그리고 우리 내외만 남았다. 여동생, 그의 장남인 조카를 먼저 해후를 하고 식사도 같이 하였다. 아쉽게도 형수님은 치매기가 있다고 해서 만나 뵙지는 못했다. 그 대신 여러 집 조카와 그들의 자녀 까지도 차례로 만날 기회는 있었으나 그 중에서도 바로 위 형님의 큰딸은 거의 처음부터 떠나 오는 날까지 우리 내외에게 '아빠' '엄마' 하면서 시중을 들고 식당 등 안내, 접대를 해주어 고마웠다. 준 재벌 정도 집의 처로 그룹회사의 회장직도 몇개 가진 것 같아 흐뭇했다.

의사의 권고 또 두 딸의 강권으로 나와 집사람은 공항에서는 휠체어로, 일반 관광 때도 타고 다니던 벤에 항상 휠체어를 실었고 좀 먼 거리, 언덕길은 가이드가 끄는 휠체어를 타야만 하는 신세가 되었다. 일정이 마침 한국과 일본의 우기인 것 같았고 실제로 제주도 여행은 떠나려던 날에는 장마가 제주도로부터 시작되었고, 비행기가 출발하지 못하고 3일 내내 제주도의 일기 예보가 폭우로 기록되어 있어 부득이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 도착한지 3일만에 목이 칼칼해 지면서 잔 기침과 가래가 끊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목소리까지 없어지면서 참기 힘들 정도가 되었다. 서울의 공기 오염도도 나쁘지만 역시 면역력이 가장 약한 나에게 온 것이리라. 숙희 조카가 자기가 사는 아파트 내에 있는 친근한 이비인후과에 인도하여 갔는데 놀랄 것은 그 아파트 단지에 3,500동의 입주자들을 위한 병원을 비롯한 각종 업소 들이 뻘뻘이 들어서 있는 안내판을 볼 수 있었다. 예약 없이 들어간 의료실에 의사가 간단한 기구로 목 검사를 하더니 약물로 닦아 낸 후 링거를 한 30분 정도 놓아주고 5일분 약봉지를 주고 하루에 세 번씩 먹으라고 했다. 마이신 계통약만 식별할 수 있고 다른 약들은 이름도 모른 채 5일 동안 복용하니 가래는 점점 줄어들고 닦새 후에는 거의 완치가 되었다. 미국 병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처음부터 나는 대강 오전에 한 두 군데만 돌아본 후 점심은 밖에서 먹고 호텔로 돌아와 쉬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서울에 있는 동안 나를 제외한 일행들은 광화문, 경복궁, 국립 중앙박물관, 북촌, 홍대 앞, 강남의 명소들을 많이 돌아 보았고 특히 아이들은 밤 문화에도 관심이 많아 줄 곳 나가서 밤 12시가 넘어야 호텔로 돌아오곤 했다. 특히 아이들은 이구동성으로 한국이 좋다 한다. 가장 어린 이번에 대학 갈 쌍둥이 손자는 내년 여름방학을 기하여 한국으로 어학 연수를 위하여 다시 오겠다고 할 정도다.



신라호텔 뒷뜰에서

며칠 후 광화문 쪽에 데모가 거의 없다는 소식을 접하고 교통이 편리한 Four Season Hotel로 숙소를 이동하였다. 법대 동기생 3명을 호텔로 초청하여 식사를 나눴다. 그중 2명은 직접 만난 것은 졸업 후 처음이지만 10여년 전부터 카톡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서로 교신을 해오고 있었다.

다른 한 명은 법대뿐 아니라 사대부중. 부고 동기 동창이다. 이외에도 꼭 만나고 싶었던 동기생이 두 명 더 있었지만 애석하게도 모두 근년에 작년에 작고하여 만날 수가 없었다. 그들 얘기와 그칠 줄 모르는 추억담으로 회고 한 후 아쉬운 가운데 헤어졌지만 그래도 아쉬워서 와인 한 병씩을 구입하여 택배로 보내 주었다.

일본의 첫 기항지인 교토는 천년 이상(794-1869) 일본의 수도로 아주 고풍스러운 도시이다. 도착하는 날부터 극심한 설사를 만나게 되었는데 가이드가 일본 약국에서 정로환이란 약을 사와서 반신반의하고 이틀을 먹었더니 기적같이 멈췄다. 그래도 다리에 기운이 없고 한참 앓았다가 일어나면 약간 어지럼 증상까지 있어 주로 휠체어 신세를 질 수밖에 없었다. 교토의 첫 인상은 한국에 비하면 별로 발전

한 것이 없어 보이고 도로는 주로 2차선이고 조용한 도시의 풍경이며 고층빌딩이라야 겨우 3-4층 정도 (아마도 잦은 지진 탓이 아닌 가 싶기도 하고) 이며 거의가 단층집이 대다수인 것 같았다. 거리에 쓰레기 통이 아예 보이지 않는다. 일본 사람들은 길 거리에 담배 궤초나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고 한다.

당시 일본은 일찍이 외국 문물을 받아 드린 소위 명치유신으로 개화되기 시작한 반면, 조선은 대원군의 집정 당시, 쇄국정책으로 외국 선교사들의 입항마저 금지하고 심지어 천신만고 상륙한 선교사나 천주교 신자를 처형해 선진 외국 문화를 오랜 동안 받아드리지 않음으로 양국이 극명하게 다른 체제로 돌입하게 됨에 따라 급기야는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여 이씨 조선이 최후를 맞게 된 계기가 된 것이다. 일본인들은 집안에 있는 돌, 나무 등 조차도 신으로 믿는 풍습이 있어 국내에 수십만개의 잡신이 있는 나라인데 하물며 일본의 발전을 초래한 명치유신이라, 이를 기념하고 숭배하는 대형 신사가 있었고 그들은 아직도 그 곳에서 나오는 샘물은 만병 통치 약수라 믿고 전에는 약수를 마시기 위하여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 들었지만 현재는 물이 오염되었다는 이유로 손만 씻어도 병이 났고 또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믿을 정도로 명치유신을 기념하는 이 신사에는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교토에서 동경으로는 신칸센(Shinkansen)으로 이동하였다. 교토에서 동경까지의 거리가 368km인데 주행 시간은 중간에 두 곳 정차하고 2시간 15분이다. 이는 1964의 동경 올림픽을 위하여 건설되었다고 한다. 가는 도중에 농촌 풍경과 후지산의 경관을 목격할 수 있었다. 동경은 역시 대도시이기 때문에 많이 현대화가 되었고 한국에 비하면 대단하지는 않지만 고층 빌딩도 제법 있고 가 볼만한 곳도 많아서 나를 제외한 일행은 부지런히 다녔고 또 만끽하는 것 같았다

가장 인상에 남은 곳은 역시 왜식 집인데 우리가 간 곳은 좌석이 10명 밖에 없는 스시 바인데 우리 식구가 10명이라 그날 저녁은 우리가. 전세를 내게 된 것이다. 매인 이다바와 보조 한명이 서비스를 하고 여성 2명이 뒤에서 접시를 바꿔주고 사계를 따라주는 등 서비스



동경 요리사 왜식집

를 3시간 동안 하는 곳이었다. Appetizer 로 부터 시작해 후식까지 약 20 코스로 전복, 우니를 비롯한 각종 생선이 연달아 나오는데 나는 처음 절반 정도는 주는 대로 먹다가 후반에서는 도저히 다 먹을 수가 없어 한 점씩만 먹고 옆에 앉은 사위나 손자 들에게 남은 것은 돌려줄 수밖에 없었다.

서울로 돌아오니 숙희 조카가 한국에서 안경을 선물로 새로 해 주었는데 미국에서 검안사는 가지고 간 것이 있어서 쉽게 당일로 만들 수가 있었다. 그러나 bifocal 로 하는 데는 시일이 최소 4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서 거리 조종만 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집 사람에게도 옷을 여러 벌 사준 것으로 안다. 이번 여정을 총 정리하고 또 기념하기 위하여 계획한 것이 가족사진첩이었다. 그래서 숙희 조카의 소개로 그녀의 친족 결혼식때 여러 번 이용했던 사진사를 고용하게 되었다. 촬영장소로는 신라호텔의 뒤 뜰을 주로 이용하고 있고 또 근 거리에 스튜디오를 가지고 있어 독사진과 가족 별 사진 등은 그 곳에서 촬영했다. 하루 오후에 촬영했고 그 후 딸들이 가서 앨범에 실을 사진들을 골라주고 왔다. 앨범이 완성되면 택배로 보내온다고 한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손녀, 손자들이 저녁 비행기로 미국으로 돌아오는 마지막 날 굳이 할아버지가 다녔던 대학을 꼭 보겠다고 해서 법과대학은 없어지고 지금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바뀌었고 또 캠퍼스 역시 옛 동숭동 캠퍼스에서 옮겼기 때문에 부득이 관악 캠퍼스로 갈 수밖에 없었다. 건물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나는 쉬는 동안에 손녀 손녀들은 부지런히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고 급기야는 서울대 모자 sweat shirts와 pendant를 기념품으로 샀다. 미국 집에 돌아와서야 사진을 촬영할 수 있었다 쌍둥이 손자 둘만 같이 사진을 찍은 이유는 다른 두 손주는 이미 직장 출근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마스크는 내가 돌아오자마자 고열이 생겨서 COVID 자가검사를 했더니 양성으로 나왔기 때문인데 손자들이 “할아버지 같이 사진 찍고 싶어요.” 해서 마스크를 쓴 채 병원가기 전에 촬영한 탓이다. 모두들 무사히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게 된 것을 감사드린다.



쌍둥이 손자와 함께

회원 명단 (116명 / 2023-8-25)

강교숙	김병순	박희병	유무영	이행순	최준희
강에드	김상만	배상규	윤선구	이홍빈	최진영
강영선	김승호	손기호	윤상영	임도혁	최철용
계동휘	김영덕	손갑수	윤종숙	임창호	최재욱
고애자	김영만	손경택	윤현남	임호순	한영수
곽상준	김우영	손대홍/	이강홍	정도현	한응오
곽선섭	김익성	남종현	이민제	정수일	한태진/
곽승용	김인형	손옥화	이상무	조달훈/	한응희
구달희	김정필	송근숙	이승준	조승자	안용웅
권문웅	김종윌	송현자/	이준	정해민	허유선
권정덕/	김창수	송학린	이대연	조상근	홍사만
홍선경	김치갑	송혜순	이영범	주상선	홍정표
권영대	김태일	신진식	이용대	진봉일	홍지복
권태전	김한중	신응남	이전구	천병수/	홍종만/
김영천	김현중	신응문	이중대	천종화	홍예경
김광현	김용면	오순호	이종석	최구진	
김동건	민준기	오유섭	이준행	최병우	
김문경	박기환	오인석	이준희	최수용	
김문언	박준구	우규환	이태호	최순채	

골든클럽 2023년 행사 일람 (2023-8-25)

1월	22~28일	플로리다 골프트립 (18명 참가)
2월	9일(목)	편집위원 운영위원 간담회 (16명 참가)
4월	1일(토)	신년교례회 - KCC Tenafly, NJ
	13일(목)	Hiking -Harriman Park (8명 참가)
	20일(목)	Golf Outing -Sunset Valley (32명 참가)
5월	18일(목)	동창회 춘계 골프대회 -Split Rock Golf Club (41명)
	25일 (목)	Kaaterskill Fall 방문 (21명 참가)
6월	8일(목)	Golf Outing - Walkkill Golf Club (28명참가)
7월	13일(목)	Golf Outing -Sunset Valley ,NJ (30명 참가)
8월	16일 (수)	Zoom Seminar - Well Dying (25명 참가)
	17일(목)	골든클럽 피크닉 (70명 참가)
	31일(목)	Golf Outing - Walkill Golf Club, NY
9월	21일(목)	Golf Outing- Split Rock Golf Club,NY
10월	12일(목)	동창회 추계골프대회
11월	2일(목)	Golf Outing
12월	2일(토)	뉴욕지역동창회 송년회 -Double Tree Hotel
	10일-16일	Myrtle Beach Golf Trip
3월	16일(토)	신년교례회

2023년 연회비 납부 명단 (85명 / \$8500 /2023-8-25)

강교숙	김병순	박상원	신두식	이전구	천종화	홍예경
강에드	김익성	박희병	신진식	이중대	최병우	
강영선	김정필	배상규	오순문	이종석	최수용	
곽선섭	김창수	성기호	오용호	이행순	최순채	
곽승용	김치갑	손경택	오인석	이홍빈	최준희	
권영대	김태일	손갑수	우규환	임도혁	최철용	
권정덕	김한중	손대홍	윤상영	임호순	한영수	
홍선경	김현중	남종현	윤선구	정수일	한응오	
권태전	권문웅	손옥화	이대연	정해민	한태진	
계동휘	김영천	송웅길	이대영	주상선	한응희	
김광현	김상만	송현자	이상무	조달훈	허용웅	
김동건	김종윌	송근숙	이승준	조승자	홍선경	
김문경	민준기	송학린	이영범	진봉일	홍정표	
김문언	박기환	송혜순	이용대	천병수	홍종만	

2023년 후원금 기부 명단 (28명 / \$12,000/2023-8-25)

강에드 200	김창수 300	오순문 200	임호순 300	홍종만 1000
권정덕 300	김치갑 80	오용호 300	정해민 1000	
김영천 300	김한중 200	우규환 200	최수용 1000	
계동휘 500	성기호 500	윤선구 200	최순채 100	
김광현 200	손경택 1500	윤현남 500	최준희 400	
김문경 200	신두식 200	이전구 1000	최철용 200	
김종윌 200	신진식 300	이행순 200	한태진 500	

2023년 입회비 납부 명단

신두식 200 이영범 200 박상원 200 윤상영 200 이승준 200

발전기금 기부명단 (1명 / \$20,000 /2023-8-25)

이준행 20,000

골든클럽 회비 납부 양식

이 회비 납부 양식을 Check (payable to SNUAA)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 SNUAA 44 Macintyre Lane, Allendale, NJ 07401
Zelle: 201-965-7759 Jay Kim

성명: (한글)

(영문)

생년월일:

입회비 \$200

단과대:

학과:

입학년도:

졸업년도:

연회비 \$100

전화번호:

Email:

후원금 (\$))

주소 (Home):

Zelle 사용안내: 골든클럽에 회비/후원금/참가비등을 Zelle 로 납부하실 분은 201-965-7759 (Jay Kim)에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때 message란에 영문이름과 내용을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9월 생일을 축하합니다.

- 곽승용 (의대65)
- 김광현 (미대57)
- 송학린 (법대59)
- 이행순 (미대60)
- 최순채 (의대60)
- 허용웅 (상대63)
- 홍예경 (가족)